



'설원의 사격' 바이애슬론

16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서 열린 제21회 회장배 바이애슬론대회 스프린트 남자 고등부 선수들이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주 세계 랭킹 22위

지난주 보다 5계단 올라

'랭킹'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세계 랭킹이 22위까지 뛰어올라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다.

16일(한국시간) 세계프로골프투어연맹이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최경주는 지난주 27위에서 5계단이나 상승했다.

최경주는 15일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공동 4위

에 입상하는 등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을 포함해 2주 연속 톱 10에 들면서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최경주의 역대 최고 랭킹은 2003년 10월에 올랐던 15위다.

소니오픈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지난주 10위에서 7위로 도약했다.

##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 국가대표 출신 김치우 영입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김치우(24·사진)를 영입했다.

전남은 16일 "이동원(24)과 인천의 김치우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인천은 팀의 간판 미드필더인 김치우를 전남으로 보내는 대신 수비수 이동원을 받아들였고, 약간의 현금도 받았다.

국가대표로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 김치우는 2004년 인천에 입단한 뒤 K리그 67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었다.

허정무 전남 감독은 "김치우는 미들필더로 좌우는 물론 수비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면서 "팀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계여자골프월드컵 19일 개막

### 한국 김영·신지애 정상 도전

한국여자골프가 새해 첫번째 대회로 열리는 제3회 세계여자골프월드컵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여자골프(LPGA)와 유럽여자골프(LET) 공동 주최로 19일(한국시

간)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 대회는 총상금 120만달러(우승 상금 22만달러)가 걸린 국가대항전.

총 22개국에서 44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김영(27)과 신지애(19·하이마트)가 짹을 이뤄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대회 장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계리 플레이어 골프장(파72·총466야드)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베어벡 최대 위기

K리그구단 대표선수 차출 거부 따라

축구협, 카타르 국제대회 불참 결정



대한축구협회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들이 올림픽축구대표팀 선수 차출을 거부함에 따라 21일부터 도하에서 열릴 카타르 8개국 올림픽팀 초청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16일 결정했다.

필 베어벡(51) 축구 국가대표 및 올림픽 대표 감독은 K-리그 전 구단의 선수 차출 거부 사태 직후 홍명보(38) 코치 등 코칭스태프와 향후 대책을 숙의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필 베어벡 감독은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당초 이날 밤 카타르로 출국해 이란, 아랍, 벨로루시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축구협회는 "하루 전 K-리그 이사회에서

선수 차출을 거부한 이후 이 대회에 아마추어팀 등을 내보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올림픽대표팀의 전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대회인 만큼 출전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제대회 불참으로 발생할 대외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국인 카타르 축구협회에 이해를 구해 수습하기로 했다.

베어벡 감독은 대회 출전이 무산됐지만 7월 아시안컵축구 본선에 대비해 한국의 상대팀들이 출전하는 2007 걸프컵대회를 참관하면서 전력 분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걸프컵대회에는 한국의 아

시안컵축구 본선 상대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등이 출전한다.

한편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전무는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 대의원총회가 열린 서초구 반포동 JW 매리어트호텔에서 K-리그 구단들과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과정화 연맹 회장과 인천 유나이티드 단장인 안종복 단장협의회장이 축구협회의 선수차출 요청을 놓고 최종 협의를 벌였으나 대표팀에 해당 선수를 내주지 않기로 한 전날 이사회에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의 루니 부르고 싶다"

미들즈브러 감독 이동국 영입 희망

구단측 "며칠내 협상 마무리 기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그 미들즈브러가 '라이언킹' 이동국(28·포항)  
과 영입 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들즈브러는 1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www.mfc.premiumtv.co.uk](http://www.mfc.premiumtv.co.uk))를 통해 "가레스 사우스케이트 감독이 며칠 안에 이동국과 영입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A매치 64경기에서 22골을 넣은 이동국이 지난주 가진 테스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을 거울 아직 시장을 맞아 팀의 첫 번째 영입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들즈브러의 사우스케이트 감독은 "이동국의 좋은 모습을 봤다. 영입하고 싶은 선수"라며 "비록 부상으로 2006 독일월드컵에 나서지 못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험이 많은 스트라이커"라고 칭찬했다.

그는 이어 "이동국이 테스트 과정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동국과 좀 더 훈련을 해보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중이고 이동국의 소속팀인 포항과도 협상을 벌여야 한다.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문제와 관련해 사우스케이트 감독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일 중 하나지만 이동국은 팀에 올 준비가 돼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 그의 특징을 잘 알게 됐다"며 아직은 큰 결집들이 아님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이동국은 국제 무대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했다. 설기 협과 박지성이 유럽 무대에 잘 적응했던 것처럼 그 역시 그런 것"이라며 "이동국은 영입하고 싶은 선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들즈브러 홈페이지는 이동국에 대해 "지난 2000~200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브레멘에서 뛰었고 현재 포항 스틸러스 소속으로 오는 3월 계약이 끝난다"며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웨인 루니처럼 이동국 역시 무를 부상으로 독일월드컵에 나서지 못했던 게 한국 대표팀에 큰 손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AFC·K-리그 '두마리 토끼' 잡겠다"

〈噩연맹 챔피언스리그〉

▶ 전남 허정무 감독 인터뷰



부담스럽다"면서 "선수층이 두텁다면 두 개팀 체제로 운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대책을 강구중인데 아직까진 별다른 묘수가 없다"며 답답한 속내도 드러냈다.

허 감독은 또 각 구단들의 올림픽 국가 대표팀 차출 거부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규정대로, 원칙대로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축구협회가 구단들로부터 사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중국 쿤밍으로 통계훈련을 떠나는 허 감독은 "신입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선수들과 남은 훈련기간동안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해 올 시즌 두 개 대회 정상에 오르겠다"며 우승 의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허 감독은 다만 "시즌 초반 K-리그 개막(3월 3일·성남)과 AFC(3월 7일·태국) 예선전, K-리그 2차전(3월 11일·장소 미정) 등 경기 일정이 빠빠한 게 다소